

언어능력평가시험

(문제지)

학년도	2015 학년도
원	원
학과(전공)	과(전공)
수험번호	
이름	

※감독관 확인	
---------	--

언어능력평가

1. (가)와 (나)를 참고할 때, (다)를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보기〉

(가) 옛날 옛적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저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 나무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렸다. 아버지 친(親) 자는 바로 나무(木) 위에 올라서서(立) 자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見) 있는 부모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항상 자식을 굽어보며 살피는 부모의 자애를 표현한 글자다.

親

아버이 친

(나)

貝

1. 조개(판새류의 연체동물 총칭)

2. 조가비(조개의 껍데기)

3. 패각(貝殼: 조개의 껍데기)

4. 소리(소랏과의 연체동물)

5. 재화(財貨)

6. 돈

7. 보화(寶貨)

8. 비단(緋緞)

9. 무늬

조개 패

(다)

親

- ① 성장한 자녀의 진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의 모습 비판
- ② 좋은 부모의 자격 요건으로 물질적 부(富)를 요구하는 세태 풍자
- ③ 부부의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가족의 모습 풍자
- ④ 자수성가형 부자보다 유산상속형 부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세태 비판
- ⑤ 권위적인 가정으로 인해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된 가족 형태 제시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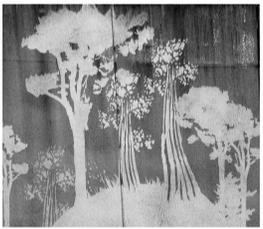
승현: 민영아, 이 광고 좀 봐. 광고판에서 여자의 머리카락 부분을 뚫어서 광고판 뒤에 비치는 햇빛의 색감이 드러나게 만들었어.

민영: 신기하다. 보통은 광고판을 세우면 뒤에 있는 배경이 가려지잖아. 이건 오히려 배경을 보여주고 있네.

승현: 맞아. 더하는 게 아니라 비우는 방식이라……. 반대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기발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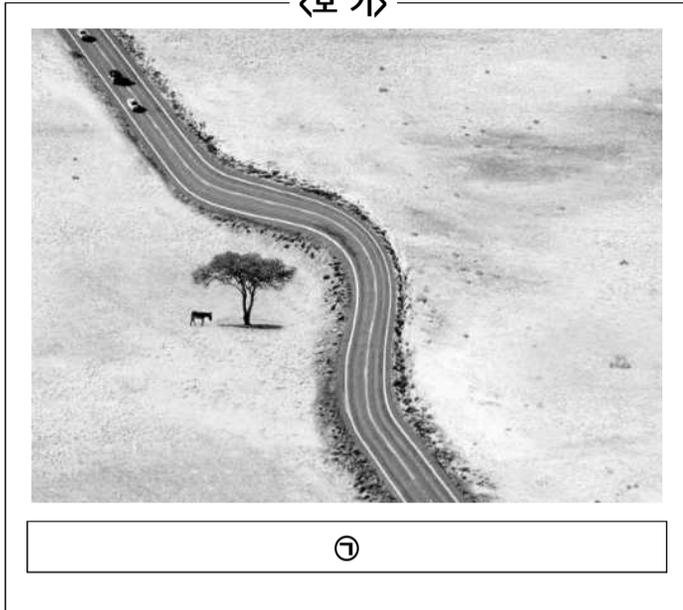
민영: 그런데 이건 야외에 설치하는 광고판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만약 벽이나 종이 같은 평면에 그려야 하는 거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승현: 이 광고와 유사한 발상을 이용해서 평면에 그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은 어때?

- ①  <벽의 면지를 굽어내어 그린 벽화>
- ②  <벽면의 담쟁이덩굴을 잘라 만든 그림>
- ③  <연필 부스러기로 그린 인물화>
- ④  <숲의 이끼를 채취하여 그린 벽화>
- ⑤  <잡지와 사진을 오려 붙여 만든 그림>

3. 다음 광고의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보기〉



㉠

- ① 역경 없는 인생에는 보람도 없습니다.
- ② 당신의 앞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③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불어 사는 길이 열립니다.
- ④ 지치고 힘드신가요? 가끔은 쉬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때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보입니다.

4. 다음은 '한지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전통 문화 산업 육성 주요 사업

	주요 사업
한글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 한글 디자인 문화상품 개발
한식	한식 조리법 표준화, 전주비빔밥 해외 판매, 국제행사 계기 한식 홍보 강화
한복	현대적 한복 디자인 및 상품화, 세계 4대 패션쇼 참가
한옥	한옥 설계 디자인전 개최, 한옥 및 고택의 관광자원화
한지	한지 활용 기능성 상품, 한지 상품 수출 지원
한국 음악	국악기 표준화, 한류 지역 국악 공연 확대

출처: 문화관광부

〈자료 2〉 전통식품 품질 인증 신청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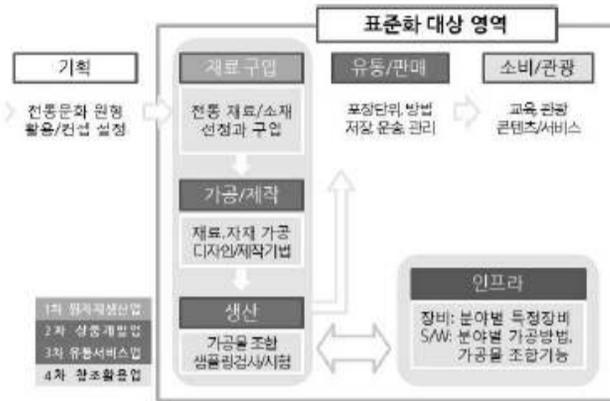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3〉

김치(Gimchi)가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기무치(Kimuchi)'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고, 김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기술인 '복사난방방식'의 온돌 역시 국제표준으로 승인되면서 미국·유럽의 복사 난방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치 vs 기무치 '김 vs 노리」, 『△△일보』, 2013.3.11.

〈자료 4〉 전통 문화 산업 공정단계 및 표준화 대상 영역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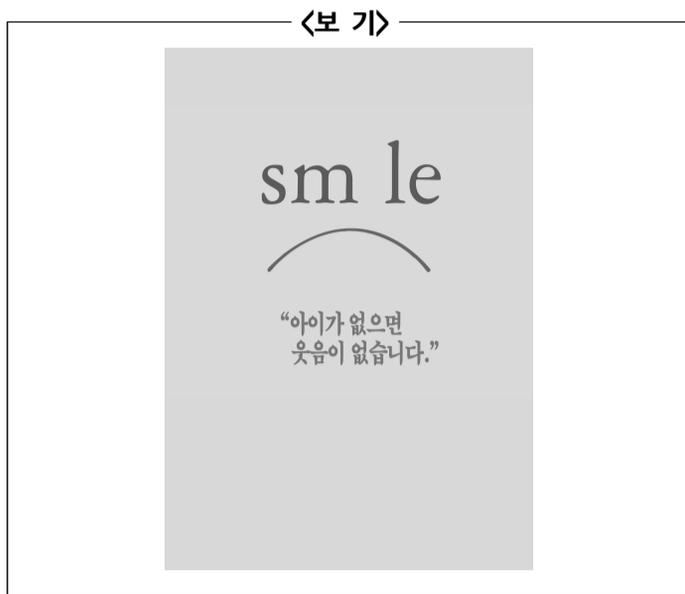
〈자료 5〉

한국패션협회에 따르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가 자체 개발한 한지 원단이 샤넬에 공급된다. 샤넬은 한지 원단으로 만든 의류를 내년 5월부터 전 세계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샤넬은 이달 초 미국 델러스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이 원단으로 제작한 바지를 미리 선보였다. ○○○의 원단은 닥나무 속살로 만든 한지를 잘게 자른 후 실로 꼬아 만든 것이다. 무독성 천연 염료를 사용해 염색 과정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다. 목화 재배 과정에서 많은 살충제를 쓰는 기존 면(綿) 소재 원단과 달리 친환경적이라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새로운 샤넬 스타일은 '한지」, 『○○신문』, 2013. 12. 26.

- ① 한지 산업 육성이 전통 문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 분야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 1〉을 제시한다.
- ② 질적으로 우수한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다른 분야의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자료 2〉를 제시한다.
- ③ 한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 3〉을 제시한다.
- ④ 한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자료 4〉를 통해 제시한다.
- ⑤ 한지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자료 5〉를 통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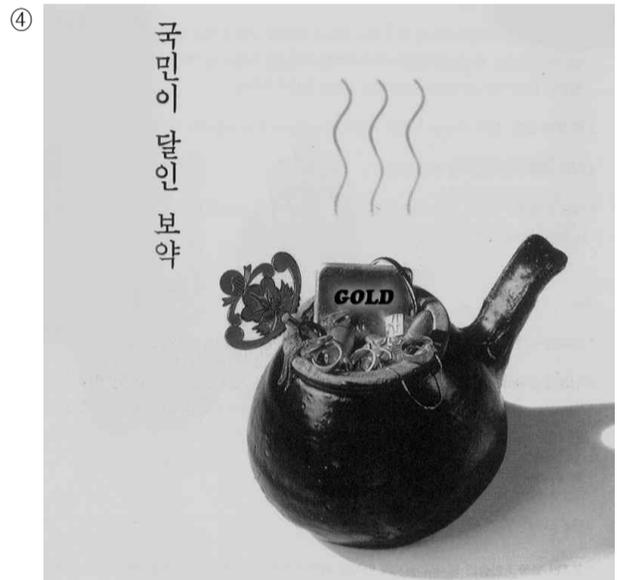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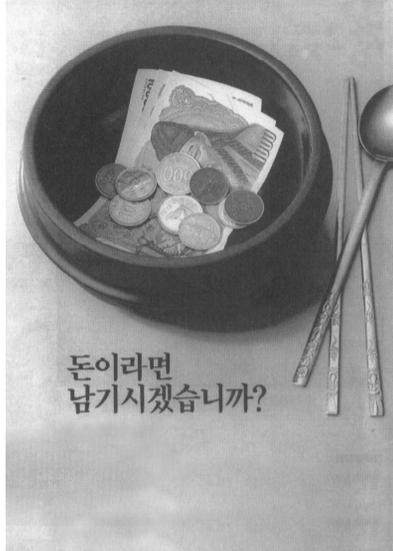
5. 다음은 문자 이미지가 사용된 포스터이다. 사용된 문자 이미지가 포스터의 의도에 기여하는 방식이 <보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2.5점]



6. <보기>와 같은 원리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2.5점]

<보 기>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방법 중 '작위법'이란 실제의 대상물에 의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기법이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그림을 결합하거나, 하나의 대상물에 변형을 가하는 방법이다. 그 중 작위법의 하위 기법인 '부분 대체법'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그림의 일부를 그와 비슷한 것, 또는 반대되거나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하며 시각적으로 강하게 소구하는 효과가 있다.



7. 다음은 전시회 소책자의 일부분이다.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 보 기 —

○○갤러리 기획전: 알렉산드르 로트첸코의 사진 세계

㉠

<대표 작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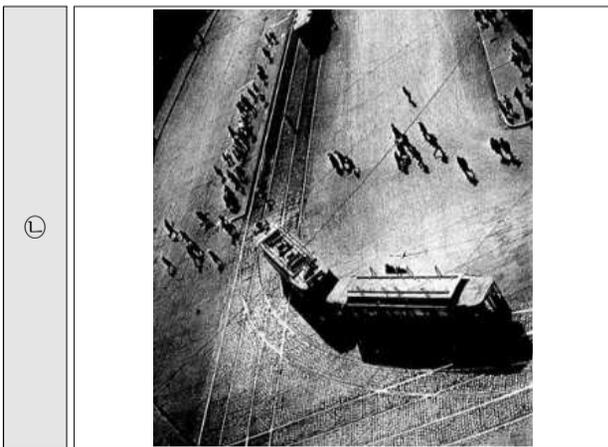
<로트첸코의 작품 세계>

알렉산드르 로트첸코(Alexander Rodchenko, 1891~1956)는 구축주의(constructivism) 사조의 대표적인 사진가로 유명하다. '배꼽시점'이라고 명명한 평면적인 원근법 구도의 사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피사체를 보다 자유로운 각도에서 담아내기 위한 구도를 실험해왔다. 그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지나 공장지대, 운동선수나 노동자들의 모습을 주로 찍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로트첸코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도 속에서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되곤 했다. 특히 카메라의 각도를 극단적으로 기울이는 부각 및 양각 사진은 그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① ㉠ 사물에 담긴 질서를 표현하는 섬세한 터치



② ㉠ 가난한 노동자들의 일상에 대한 진솔한 기록



③ ㉠ 순간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날카로운 시선



④ ㉠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구도의 미학



⑤ ㉠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끈질긴 탐구



8.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5점]

지난 50여 년 동안 현대의 만화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글과 그림을 엮어 만화를 만들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화에 있어서 글과 그림의 조합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과 그림의 결합을 통해 만화는 스토리텔링의 예술로 확고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만화에서 글과 그림이 결합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일단 ㉠글 중심의 결합이 있다. 이 경우 그림은 존재하지만,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텍스트에 그다지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림 중심으로 결합된 경우, 글은 시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연속 장면의 음향효과 구실에 그치게 된다. 한편 ㉡이중 결합은 글과 그림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병렬 결합은 글과 그림이 서로 만나지 않고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상호의존 결합의 경우 글과 그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가지 요소로는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몽타주가 있는데, 여기서 글이 그림의 일부처럼 기능한다.

<보 기>



- ① ㉠-a, ㉡-c, ㉢-b
- ② ㉠-a, ㉡-d, ㉢-c
- ③ ㉠-b, ㉡-c, ㉢-d
- ④ ㉠-c, ㉡-d, ㉢-b
- ⑤ ㉠-c, ㉡-a, ㉢-d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타워즈>나 <아이언맨>과 같은 SF영화에는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체의 이미지가 공간 위에 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홀로그램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공연장이다. 2014년 5월에는 미국 빌보드뮤직 시상식에서 2009년에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으며,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 홀로그램 전용관에서는 마치 진짜 가수가 등장한 듯 실감나는 공연이 이루어진다.

홀로(holo)란 그리스어로 '전체'를, 그램(gram)은 그리스어로 '메시지'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홀로그램이란 어떤 물체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완벽하게 보여 주는 이미지를 말한다.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은 헝가리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인 데니스 가보르이다. 홀로그램이 만들어진 1948년 당시에는 레이저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선명한 물체의 상을 기록할 수 없었지만 이후 레이저가 발명되면서 선명한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다. 레이저에서 나온 광선을 2개로 나눠 하나의 빛은 직접 스크린을 비추게 하고, 다른 하나의 빛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에 비추는 것이다. 이때 직접 스크린을 비추는 빛을 기준광이라고 하고, 물체를 비추는 빛을 물체광이라고 한다. 물체광은 물체의 각 표면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이므로 물체 표면에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따른 위상차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변형되지 않은 기준광이 물체광과 간섭을 일으키며 만들어진 간섭무늬가 스크린에 저장된다. 이러한 간섭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홀로그램이라고 한다.

홀로그램 안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재현하려면 기록할 때 사용된 광선과 같은 광선을 다시 스크린 건판에 쏘아야 한다. 기록시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파동만이 3차원으로 재현되고 파장과 위상이 다른 파들은 저장된 홀로그램을 아무런 효과 없이 통과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홀로그램 콘서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위와 같은 홀로그램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플로팅 홀로그램'이라고 불리는 홀로그램을 흉내 낸 영상 기술로 만들어진다. 플로팅 홀로그램은 무대 위에 기울어진 투명 스크린을 설치한 뒤, 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이도록 관객들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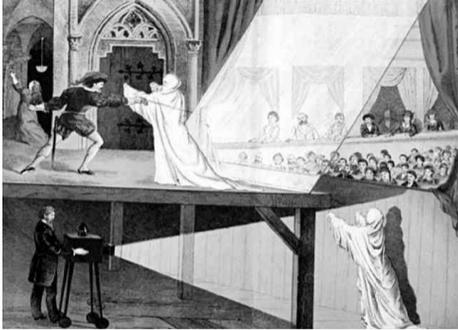
이 기술의 핵심은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빛을 반사하기도 하는 투명한 스크린이다. 무대 천장에 고정된 프로젝터가 무대의 바닥면을 향해 미리 녹화된 영상을 비추면 무대의 바닥면에 설치된 스크린은 프로젝터가 쏜 영상을 담고, 무대 바닥의 스크린에 반사된 영상이 다시 45도 각도로 무대 위에 설치된 투명한 스크린에 비친다. 무대 앞에 있는 관객은 무대 천장이나 바닥면에 있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볼 수 없으며 무대 위 투명한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만을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가수가 등장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점]

- ① 어떤 대상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경우, 여러 각도에서 대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② 데니스 가보르가 홀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물체의 상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 ③ 홀로그래피는 기준광과 물체광의 진폭 차이에 따른 간섭무늬를 기록하여 홀로그램을 만든다.
- ④ 홀로그램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광선은 기준광과 같은 진동수를 가진 광선을 사용해야 한다.
- ⑤ 플로팅 홀로그램을 구현할 때에는 광선을 2개로 나누는 장치가 필요 없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동 과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플로팅 홀로그램은 ‘페퍼스 고스트’ 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페퍼스 고스트라는 이름은 1800년대 극장에서 착시 효과를 이용해 연극 무대에 환영을 연출한 극 연출가 존 헨리 페퍼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무대 위에 투명 스크린을 설치한 뒤, 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이도록 관객들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다.

- ① 무대 위의 투명 스크린은 빛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반사시키기도 하는 재질로 만들어졌을 거야.
- ② 관객들이 스크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무대보다 낮은 곳에 관객석이 마련되었을 거야.
- ③ 무대 아래의 프로젝터에서 영사된 유령의 영상이 스크린을 통해 무대 위에 떠올랐겠어.
- ④ 무대 위에 설치된 투명 스크린은 45도 각도로 설치되었겠군.
- ⑤ 무대 아래의 벽이 반사판 역할을 했을 거야.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추리소설의 영웅들은 거의 대부분 상류층 출신의 영리한 탐정이며, 이들은 주로 똑똑하고 교활한 범죄자를 상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설정은 당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감옥에는 채무로 인해 잡혀온 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범죄자들은 절도나 사기, 강도 등 잡범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중하층 계급 출신이 대부분인 경찰들은 탐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해냈다. 그렇다면 왜 초기의 추리소설에서는 주로 지적인 매력을 지닌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일까?

추리소설에는 범인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고, 독자는 지적인 탐정과 마찬가지로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면서 소설을 읽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영리한 탐정이 추리에 성공하는 것과는 달리, 작가는 독자의 추리가 성공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작가는 항상 독자와 지혜 대결을 펼치며, 추리소설의 목표는 서튼 트릭이나 눈속임 없이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결국 범인의 정체는 밝혀졌을 때, 성공한 추리소설은 지혜 대결에서 패배한 독자에게 놀라움과 전율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속임수를 쓰지 않고 놀라게 만들기야말로 이 장르의 진정한 목적이다. 추리소설은 고도로 형식화된 장르로서, 사실상 범죄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추리소설에서 살인은 이야기 시작되기도 전에 발생하며, 플롯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살인 사건도 단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해 추리소설이 진정으로 다루는 주제는 범죄나 살인이 아니라 수수께끼였다. 범죄는 풀어야 할 문제, 짜 맞추어야 할 퍼즐에 불과했으며, 이제 추리소설에서 범죄는 사회적이고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것이 된다.

이처럼 추리소설에서 범죄가 ‘분석적인 퍼즐’로 간주된다는 것의 의미는 사회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애초에 추리소설이 지닌 특징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심층부에서 작동하는 내밀한 힘

과 연관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상품 소유자는 교환을 통해서만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소외되고 물신화된다. 시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양으로 수량화될 수 있고, 측정이나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는 화학 성분 같은 물리적 실체이거나 주가 변동 같은 객관적 현상처럼 세세히 분석되고 연구된다. 추리소설은 이러한 분석적 사유를 숭배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닐까? 범죄와 같은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 가능한 분석적 퍼즐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은 사람보다 사물이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문학이다.

11. 윗글에서 설명하는 ‘추리소설’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추리소설은 인간관계가 상품의 교환 관계처럼 물신화되어 분석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이다.
- ② 추리소설은 하나의 상품으로 창작되고 유통되므로 상품 교환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학이다.
- ③ 추리소설은 인간관계를 수량화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장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예찬하는 문학이다.
- ④ 추리소설은 범죄를 통해 인간이 소외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을 비극적으로 형상화하여 그려내는 문학이다.
- ⑤ 추리소설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성과들이 반영되어 있는 문학이다.

12. 윗글의 ‘추리소설’과 <보기>의 ‘범죄소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193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경향의 추리소설인 범죄소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범죄소설에서는 법과 질서가 더 이상 절대적인 선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와 싸우는 탐정이나 경찰들조차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법과 제도를 중시하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추구하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관점에서는 옹호할 수 없는 가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범죄소설에서는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추리가 아니라 범죄의 동기와 배경이 중요하게 제시되며, 범죄와 기존 질서, 악과 처벌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독자들은 소설에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사회적 정당성 및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의문을 품게 된다.

- ① 추리소설에서 범인의 정체나 범죄의 방법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는 달리, 범죄소설에서는 범인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 ② 추리소설에 영리하고 매력적인 탐정이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범죄소설에서는 탐정이 더 이상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 ③ 추리소설에 근대적인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범죄소설은 독자가 근대적 세계관에 의문을 품도록 유도한다.
- ④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은 범죄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모순점을 잘 보여준다.
- ⑤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에서는 범죄와 대결하는 탐정이나 경찰의 모습이 제시된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재(呈才)라는 말은 임금 앞에서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땅재주, 줄타기 등 여러 재예(才藝)를 보여드린다는 뜻의 용어였으나 후에 궁중잔치 때 공연하는 모든 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면서 궁중춤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다. 그러나 정재는 단지 춤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연행예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연 행위의 배후에 있는 ㉠일상공간과 무대 위에 나타난 ㉡공연공간 및 ㉢극중공간의 측면에서 정재를 보았을 때 각각의 작품이 지닌 연행예술로서의 특징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고려사』의 가요편 ‘악지(樂志)’에 실린 속악 및 당악 가사는 정재에서 노래로 불려졌다. 그 과정에서 가요의 화자는 어떤 방식으로 정재의 공연 속에서 구현되었을까. ‘정읍사’의 화자는 행상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로 알려져 있다. 북춤인 ‘무고(舞鼓)’ 중에 ‘정읍사’가 불리는 부분을 보면, 여러 기녀들이 ‘정읍사’를 부르는 동안 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기녀가 북춤을 춘다. 합창대인 여러 기녀들은 무대 남쪽에서 노래를 부르며 된다. 반면 북춤을 추는 두 기녀는 앞으로 나서서 공연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여러 기녀가 함께 노래하고 있으므로 ‘정읍사’의 노래는 극중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반면 당악정재 ‘헌선도(獻仙桃)’에서는 송축하는 내용을 낭송하는 구호치어(口號致語) 및 ‘헌선도원소가회사’를 비롯한 일곱 개의 노래를 부른다. 죽간자*를 든 사람이 맡아 하는 구호치어는 정재의 내용을 간추려 전달하면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구호치어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회의 계기에 따라 조정의 신하 등이 창작하여 바뀔 수 있다.

구호치어에 이어 신령스러운 복숭아를 바치는 핵심 장면이 연출된다. ‘헌선도’의 화자는 서왕모로, 전승된 고사의 내용처럼 임금에게 복숭아를 바치기 위하여 궁궐에 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서왕모 옆에서는 선녀의 모습을 한 험무 두 명도 같이 노래를 부른다. 서왕모는 노래를 부르며 복숭아를 올린 쟁반을 받들어 내전 앞에 놓인 탁자에 올리게 된다. 궁정 연회에서 ‘헌선도’의 무대는 언제나 임금이나 대비의 좌석에 근접하여 마련된다. 신령스러운 복숭아를 바친 극중 인물의 행위가 현실 속의 인물을 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무고’는 극중공간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자인 기녀가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공간의 층위가 관객에게 보일 것이다. 반면 ‘헌선도’는 극중공간을 구축하기 때문에 관객은 극중 인물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공연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현실이 위치한 일상공간, 기녀가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공간, 작품 속의 극중공간의 층위를 통하여 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 붉은 칠을 한 나무 자루 위에 가는 대나무를 꽂고 붉은 실로 엮은 후, 끝에 금박한 수정 구슬을 달아서 장식한 의물

13. 뒷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무고’와 ‘헌선도’는 『고려사』의 ‘악지’에 실려 있다.
- ② ‘무고’에서 노래를 부르는 창자는 다수이며, ‘헌선도’에서 노래를 부르는 창자는 한 명이다.
- ③ 정재는 각종 재예를 임금에게 보여드린다는 뜻이었으나 점차 궁중무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다.
- ④ ‘무고’에서 ‘정읍사’의 화자는 행상인 아내이며, ‘헌선도’에서 ‘헌선도원소가회사’의 화자는 서왕모이다.
- ⑤ 구호치어의 내용은 정재가 공연되는 연회의 성격에 따라 조정의 신하 등이 창작하여 임금에게 바칠 수 있었다.

14. ㉠~㉣의 측면에서 ‘무고’와 ‘헌선도’ 공연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무고’ 공연을 연회가 거행되는 계기와 결부시켜 감상했다면 ㉠의 측면에 주목하여 공연을 이해한 것이군.
- ② ‘헌선도’에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왕모가 복숭아를 바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간단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겠어.
- ③ ‘무고’의 수용자는 ㉡의 층위에서 기녀들의 춤과 노래를 감상할 거야.
- ④ ‘헌선도’의 ㉢, ㉣에서는 모두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 ⑤ ‘헌선도’에서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 분리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어야 해.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란해지며 군졸들, 강쇠를 잡아끌고 들어온다.

부 사 무어냐? 강쇠?
 군 졸 이 자가 대감을 빼야 한다고 소란을 부려 잡아왔습니다.
 이자현 강쇠?
 강 쇠 대감, 싸움을 멈춰 주시오.
 부 사 내다 베어 버려라!
 이자현 가만두어라. 그놈은 내가 죽이겠다. 왜? 왜 왔느냐?
 강 쇠 지금 대감의 딸 지영이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자현 뭐라고? 지영이가? 지영이가 왜?
 강 쇠 대감, 저들의 포위를 풀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지영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감!
 이자현 그뿐이냐?
 강 쇠 저들을 성 밖으로 도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자현 부사, 싸움을 멈추게 하오.
 부 사 안 됩니다, 대감.
 이자현 내 딸이 적에게 잡혀 있다 하오.
 부 사 하오나 저들 반란군을 도망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현 (노기를 띠다.) 부사! 명령이오. 싸움을 멈추고 포위를 풀라 하시오.

㉠부사 대답 없이 군졸들과 나가 버린다.

이자현 왜? 왜 지영이 노비들에게 잡혔느냐? 강쇠, 너 때문이지? 네가 그 애를 꼬여 냈지?
 강 쇠 대감, 지영은 대감의 배신을 알려 주려 왔던 거요.
 이자현 (칼을 겨누며) 뭐라고, 배신? 내게 칼을 들이던 놈들이 나더러 배신이라고?
 강 쇠 속임수로 다스리는 관리의 얼굴은 그렇게도 뻔뻔하오?
 이자현 닥치지 못하겠느냐?

호위 군졸, 강쇠를 후려쳐 쓰러뜨린다.

강 쇠 내 입 하나를 닥칠 수 있다 하더라도 수천수만의 노비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오! ㉡(복소리 더 크게 들린다.)
 이자현 저 복소리를 멈추게 해라. 왜 싸움을 멈추지 않느냐?
 ㉢(성루로 뛰어 올라가 본다. 군졸들 지영의 시체를 들고 들어온다.)
 군 졸 반란군이 내던진 시체이옵니다.
 강 쇠 (달려가며) 지영!
 이자현 (울부짖듯) 오-! 내 딸. (강쇠에게) 그 애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하겠느냐?

군졸들, 강쇠를 떼어낸다.

강 쇠 지영은 어제까지는 대감의 딸이었으나 오늘은 내 아내요. 이자현 (지영을 보며)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누가 널 이렇게 했느냐? 어제까지 초롱초롱하던 네 눈. 네 어미를 너무나 닮아서 섬찟하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파리해졌느냐? 말을 해라.

강 쇠 말하지 않을 것이요. 그 여자는 이미 아버지를 떠난 몸이오. 그 여자는 지금 내게 말을 하고 있소. 그 몸속에 나를 간직하고 있다고. 지영! 그대를 죽인 그 힘으로 나도 죽임을 당할 것이오! 자- 어서 내 목을 쳐라! 난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이자현 그래 죽여 주마. 바로 네놈 때문이다. 내 딸을 죽게 한 건 바로 네놈이다.

강 쇠 대감, 잘못 아셨소. 내 아내를 죽게 한 건 바로 그 아버지의 배신 때문이오. 노비 문서가 지영을 죽인 것이오.

이자현 노비 문서?

강 쇠 그렇소. 노비 문서가 지영을 죽이고 사람들의 희망과 양심을 죽이고 만 것이오. 노비 문서가 피를 흘리게 했소.

이자현 도대체 그 종잇조각이 무어란 말이나? (미친 듯 호령한다.) 노비 문서를 태워 버려라! 부사! 부사를 불러라!

부사, 판관, 기타 장수들 등장한다.

이자현 부사, 노비 문서를 태워 버리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 말 들리지 않소! 명령이오! 노비 문서를 태우시오!

부사 이하 칼을 든 채 조용히 이자현에게 다가간다.

부 사 대감! (찌르다.)

이자현 부사? ...아...!

이자현 길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강쇠 결결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미친 것 같다.

부 사 그놈을 하옥하되 신문한 후 반란군과 같이 처형하라. 그리고 충주성 목사 이자현은 반란군을 진압하다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나라에 장계를 올려라. 이자현 목사와 그의 딸 지영의 장례식은 반란군의 처형이 끝난 후 성대히 거행하라.

강쇠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 속에 코러스 등장.

코러스 ㉠길은 있으되 어디에나 없는 것이오. 그 뜻은 있으나 그 뜻이 남지 못하리로다. 남지 못하리로다.

강렬한 북소리와 함께 막.

-윤대성, 「노비 문서」

1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5점]

- ① ‘강쇠’는 ‘이자현’에게 노비들이 성 밖으로 도주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부사’는 ‘이자현’의 뜻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노비들을 진압하고자 한다.
- ③ ‘지영’은 ‘이자현’의 배신을 노비들에게 알려주러 갔다가 사로잡혔다.
- ④ ‘이자현’은 ‘지영’을 구하기 위해 노비 문서를 태울 것을 명령한다.
- ⑤ ‘지영’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강쇠’의 아내가 되었다.

16. **윗글을 공연하기 위해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 대답 없이 나가는 행동에서 ‘이자현’의 명령에 대한 ‘부사’의 불만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 ② ㉡: 관군과 반란군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이 드러나도록 북소리가 점점 커지게 해야겠어.
- ③ ㉢: 성벽 너머를 살피는 행동을 통해 성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환기시켜야겠어.
- ④ ㉣: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웃는 행위를 통해 ‘강쇠’의 절망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 관객이 비극적인 정서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겠어.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보 기> —

이 작품은 고려시대 ‘만적의 난’을 소재로 하여 권력을 둘러싼 인간 사회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인간의 이상을 짓밟고 있는가를 그리고 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노비군을 조직한 지배 계층의 태도가 몽고군이 물러난 후 변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허위의식과 폭력성, 자유를 억압하는 계급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으나 비극적인 분위기에서 막을 내림으로써 역사의 진보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 또한 드러내고 있다.

- ① 자유에 대한 노비들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허위의식을 그려내고 있다.
- ② ‘이자현’의 명령에 불복하는 관리를 통해 한 사회에 통용되는 부당한 제도가 쉽게 바뀔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자현’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부사’를 통해 지배 계층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노비들을 도우려는 ‘지영’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을 통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자현’과 ‘지영’을 반란군과 싸우다 죽은 것으로 기록하려는 ‘부사’를 통해 신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 노선 하에 수십여 년 간 지속된 경제 성장 우선의 국정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도적·재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를 막연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높았던 경제성장률은 역설적으로 저조한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맞물렸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은 사실상 유일한 사회보장제도로써 기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 가정 보호, 후 사회복지’가 한동안 공식 정책용어로 사용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할 것 없이 요보호 인구*에 대한 지원은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인들의 가족 관계가 실로 경탄할 만큼 상호부양행위로 채워졌음을 의미했고 이는 개발자상주의 위정자들의 입장에서선 반드시 지속시키고 싶은 문화였다.

그러나 한국형 복지모형, 즉 ㉠ ‘가족에 의한 복지’는 가족이 요보호 인구를 부양하여 복지를 구현하는 그 본질적 특성 때문에 가족 전체의 잔여소득과 부양노동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 의한 복지’는 부부가 함께 일하고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대다수 저소득층에게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극단적 가족 의존성이 재분배지출의 역제를 통해 경제성장 극대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압축적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갖가지 사회문제가 가족갈등과 가족해체의 형태로 표출되도록 유도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한국인들은 근대적 정치·경제·사회 체계를 역사적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도적 패키지로써 도입했다. 그 과정은 수백 년의 역사적 경험을 수년의 제도적 모방으로 압축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량 지식 주입의 공교육 보급이 지상 과제로 떠올랐다. 공교육은 압축적 근대성의 사관생도를 단기 양성하는 제도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정치·사회·문화 영역에 걸쳐 핵심적 자원과 지위가 분배되었다. 토지개혁, 민주공화국 수립, 한국전쟁 등으로 일거에 평등사회의 일원이 된 한국인들은 교육의 계층 지위 결정력에 매우 민감해졌다. 특히 자녀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층 상승 노력은 모든 한국인에게 예외 없이 참여하는 ‘국민적 특성’이 되었다. 교육투자의 경제·사회적 결실은 경제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풍부해졌으며, 이 결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상승 과정을 거쳐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자녀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집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좀 더 효율적인 교육투자 및 학습경쟁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이민’이라는 사회 환경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청소년과 교육에 투자하는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게나 부러운 것이며, 이는 실제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에 기초한 초기 산업화에서 최근의 지식 집약형 산업발전이 이르기까지 숨 가쁠 정도의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를 견인해왔다. 바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앤서니 기든스가 이른바 ‘제3의 길’ 노선의 핵심으로 인적 자본에 국가가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했는데,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 ‘사회투자가족’이 활약해왔다고 할 수 있다.

*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인구

1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점]

- 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는 복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기업에 전가하였다.
- ② 가족 의존적인 자본주의 산업화 정책은 가족해체 등의 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 ③ 한국은 근대화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식 주입적인 공교육 제도를 활용하였다.
- ④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의 계층 상승이 가능했기에 각 가정은 자녀 교육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 ⑤ 잔여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은 가정 내의 요보호 인구를 적절히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 밑글의 논지에 따를 때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판 부부
- ② 사업에 실패한 동생의 재기를 돕기 위해 빚을 갚아 준 형
- ③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년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며느리
- ④ 양육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 부모
- ⑤ 유학 간 자녀의 체재비 마련을 위해 주말에 부업을 하여 돈을 버는 아버지

20. ㉡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세대 간 계층 상승 노력에 따른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
- ② 가족에게 투자의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워져.
- ③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학습 경쟁이 과열되는 것으로 손실이 될 듯해.
- ④ 국민을 교육할 의무를 국가 대신 가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 ⑤ 가족에게 투자할 비용이 없는 빈곤 계층은 어떻게 인적 자원을 개발하게 될지 걱정이야.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급’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 ‘B급 영화’라는 표현은 이미 192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B급 문화’는 확실히 2000년대적인 현상과 답론이다.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B급 영화’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B급’ 코드를 대중 예술의 한 기법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영향력이 방송, 가요, 웹툰과 같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B급’을 문화적 자의식으로 삼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B급 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저급하다’는 것이다. ‘싼티, 촌티, 날티’라고 했을 때, B급 문화는 ‘고급문화’와 구별되는 문화라는 의미가 있다. 고급문화는 학계나 사회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정서를 고양시킨다고 공인된 예술이나 문화’를 뜻한다. 어떤 권위에 의해 ‘표준’으로서 인정된 양식이라는 것이다. 대개는 훈련받은 감각으로 향유하거나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인정받은 이들이 생산해내는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예컨대 클래식 음악이나 현대 추상 회화를 창작하거나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받는 데 유리한 이들은 대개 경제적 자본과 학력 자본을 갖춘 엘리트인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저급문화’는 이와 반대로 교육이나 훈련을 애초부터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 혹은 사회의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커리큘럼을 거치지 않은 이들의 문화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베토벤의 작품을 듣고 논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연주 기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가요를 듣거나 만화를 보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B급 문화를 ‘저급한 문화’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B급 문화는 A급 문화, 즉 주류의 테내에서 생성됐지만, 주류의 주어진 궤도에서 탈선함으로써 주류의 바깥으로 탈주하는 문화다. 이를 통해 B급 문화는 주류의 중심을 습격하고, 주류의 중심을 해체하는 문화다. B급 문화가 여기 없는 것을 꿈꾸는 ‘바깥의 문화’라면, A급 문화는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안주하고 기존의 가치를 강화하는 ‘안의 문화’다. B급 문화가 ‘광장의 문화’이며 ‘열린 문화’라면, A급 문화는 ‘밀실의 문화’이며, ‘닫힌 문화’다.

A급이 지향하는 중심과 내부, 밀실이란 무엇인가? 제한된 자리, 소수의 선별된 사람들만이 입장할 자격을 얻은 곳이다. 선택받은 소수가 폐쇄된 공간에서 누리는 값비싼 ‘실내악’의 향연이 A급 문화라면, 무한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다수가 어우러져 아우성을 내는 곳이 B급 문화다. A급은 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입회(가)원서를 극단적인 소수에게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권력을 강화한다. 반면 B급의 광장은 어떤 자격증이나 입회 원서도 필요치 않는, 만인에게 열린 공간이다. 그럼으로써 B급은 밀실의 권력을 해체한다. A급은 소수를 선별하지만, B급은 만인과 연대한다.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B급 문화에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평의 사고방식, 평등의 구조로서 오늘날의 문화지형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B급 문화의 범주: 영화에서 대중가요까지
- ② B급 문화의 이면: 경제논리에 종속된 고급문화의 몰락
- ③ B급 문화의 수용자: 주류 문화를 전복시키는 대중 집단
- ④ B급 문화의 재인식: 저급한 문화에서 평등한 연대의 문화로
- ⑤ B급 문화의 가능성: 대중문화의 성장과 새로운 문화세대의 출현

2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한국에서 ‘B급 영화’라는 표현은 ‘B급 문화’가 본격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 것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② 소설가 지망생이 A급 문화의 생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춘문예와 같은 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등단 절차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 ③ B급 문화가 문화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기존에 A급 문화가 수행하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④ A급 문화를 향유하는 ‘소수’의 선별된 자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장기간 훈련받은 감각을 갖춘 이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다수의 수용자에 의해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자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불러오기도 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는 B급 문화가 유통되는 공간 중 하나일 것이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나타난 관점을 비판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중에는 B급 문화의 감수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작품들이 제법 많다. 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림체, 개연성과는 관계없이 돌연히 반전되는 서사는 전통적인 예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급’해 보이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요소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작품들이 패러디나 혼성모방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인하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독자들 역시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전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예컨대, 게임, 인터넷 용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작품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문화적 원천들은 주로 젊은 층의 독자들에게 의해 향유되는 경우가 많기에 B급 정서를 내세운 웹툰의 주요 독자 역시 특정한 세대에 국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나아가 B급 문화는 세대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계기로써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① A급 문화 역시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② A급 문화와 B급 문화를 구분 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문화를 다소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③ 문화가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B급 문화가 고급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④ B급 문화 역시 수용자층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B급 문화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화라는 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 ⑤ A급 문화가 주는 예술적 가치와 B급 문화에 내재된 오락이 주는 즐거움을 모두 향유하고자 하는 수용자층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의견 아닌가?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평이란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을 통한 사유이고, 작품 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의 중요함에 비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겠지요. 형은 언젠가, 정신분석학의 논리를 익히고 있던 저에게, 그게 너무 쇠말적인 틀이 아니냐고 던지시 말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론을 통해 제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개념이나 기법뿐 아니라 태도와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석가가 지녀야 할 미덕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분석가는 그를 찾아온 환자에게 투명한 스크린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환자로 하여금 저항 없이 말하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그들이 구사하는 두 개의 기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두법과 ㉡절분법이 그것입니다. 분석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두법이란 환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에 심표와 느낌표, 물음표와 마침표를 찍어주는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에 강세를 넣어주고 흘러가는 말들을 단락지어주고 반복해주고, 이를 통해 말의 맥락을 잡아주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 자료들을 포착해 하는 기술입니다. 또 절분법이란, 말을 중단시킴으로써 환자를 자극케 하는 것이지요.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환자들은 왕왕 면담만을 위해 할 말을 미리 준비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말들은 분석가에게 무의식의 자료들을 제공해줄 수 없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분석가는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중단해버립니다. 그것을 절분법이라 부르더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비평의 기능과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학작품과 비평의 관계를 곧바로 분석가와 환자의 관계에 빗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또 비평의 영역은 다양하여 단지 분석적인 글만이 아니라, 문학의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글도, 또 저널리즘을 위한 대중적인 글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평의 본무라 한다면, 무엇보다 작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신분석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 목소리의 흐름에 구두점을 찍어 맥락을 만들어내고 더러는 과도함과 진부함을 절분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4.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청자를 상정하고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③ 유추를 통해 대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비판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있다.

25. ㉠과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을 비평에 적용하면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겠군.
- ② ㉡을 비평에 적용하여 특정한 시대의 작품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과 ㉡은 문학의 이념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겠군.
- ④ ㉠과 ㉡을 통해 비평가는 작가의 알려지지 않았던 전기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겠군.
- ⑤ 문학 비평가는 ㉠과 ㉡을 활용하여 문학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발견할 수 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에 이르러 역사가들은 그들의 한정된 경험과 주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심했다. 랑케는 이러한 고민을 거쳐 ‘모든 시대는 신에 직결되어 있다’는 공리를 세웠다. 여기서 신은 중세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적 전제로서 설정되어 있다. 즉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초월한 신의 의지와 섭리가 담겨 있으므로 역사가는 과거에 일어난 개별적 사건에 담긴 신의 뜻을 하나의 상형 문자처럼 해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의 기반 위에서 현실에 대한 재현의 가능성을 확신했던 카는 실재하는 사실의 원인들에 대한 탐구가 역사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카의 입장은 역사학이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확립하고 발전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후 ‘언어’를 강조하는 일군의 역사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불리는 것으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언어는 실재를 잘 드러낼 수 없으며, 나아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사실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역사 역시 ‘언어’에 의해 일정한 질서로 배열된 담론 체계의 결과물에 불과했다.

(나) 하지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이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보면 언어로 이루어진 역사는 더 이상 문학과 구별되지 않으며, 결국 역사학은 그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사학의 위기 상황에서 에번스는 역사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역사학의 유용성을 변호하고자 했다. 에번스에 의하면 역사가는 아무 이야기나 꾸며서 역사를 써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증거에 입각해서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역사적 상상력은 사료상의 증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증거를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생략하는 명분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들은 더 이상 역사 서술의 과학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역사에서 언어를 강조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비판했다. 역사학의 중요 과제가 과거 사건의 현재적·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해내는 일이었다면, 이러한 재해석은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 재구성된 역사 서술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더니즘 역사학은 자신의 역사 서술만을 ‘과학’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들은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역사학에 나타난 서구 중심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라) 하지만 카는 역사가의 임무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랑케를 비판했는데, 카에 의하면 ‘과거에 대한 사실’ 그 자체가 ‘역사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카는 역사가가 현재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특정한 ‘과거의 사실’을 선택해야 하며, 역사가가 선택된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성립하는 것이 ‘역사’라고 주장했다.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정의가 지닌 의미가 이것이다. 카에 이르러 역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분석적 태도와 방법을 지닌 과학이 될 수 있었다.

26. 윗글의 (가)~(라)를 논지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2점]

- ① (가)-(다)-(라)-(나)
- ② (가)-(라)-(나)-(다)
- ③ (나)-(라)-(다)-(가)
- ④ (라)-(가)-(다)-(나)
- ⑤ (라)-(나)-(가)-(다)

27. 다음은 윗글을 참조하여 '역사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지훈: 이번 호 역사 신문의 특집 기사는 '3·1 운동'이야.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특집 기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자.

광욱: 나는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볼게. ㉠랑케는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과거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야겠지?

미란: 물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찾겠니. ㉡카의 주장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1 운동'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인 원인들을 찾는 거야.

광욱: 원인만 찾으면 놓치게 되는 과거의 사실들이 있잖아. ㉢랑케는 객관적인 태도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별로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미란: 역사에서 중요한 건 역사관이야. ㉣카의 견해처럼 역사는 현재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인 만큼 오늘날의 관점에서 '3·1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지훈: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상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활용할 필요가 있어. '3·1 운동'에 관한 많은 기록물들이 있잖아. ㉤에번스가 강조했듯이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학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이니까 기록물들을 꼼꼼히 분석하자. 그러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3·1 운동'을 바라볼 수 있을 거야.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8.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수년간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던 한 남자가 결국 재판에서 가짜로 판명돼 처형당했던 16세기의 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그런데 16세기 프랑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정작 묘사되는 농촌은 현재의 프랑스이며, 배우들도 현재의 말과 행동을 한다. 영화는 16세기 농촌이 실재가 아니라 '재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영화는 '과연 실재 역사란 존재할까', 그리고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재 역사를 온전히 파악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첫째, 비록 재현일지라도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미 가능해진다. 화면 속에 하나의 역사적 실재를 실험해보는 것이다. 둘째로 영화는 '역사'들이 있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있어 버린 '실재'를 복원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상들에 접근한다. 영화는 '판사', '지식인', '상위 계층'과 같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 밑에 묻혀 있던 '농부', '하층민', '문맹인' 등과 같은 '역사 아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발굴해낸다.

- ①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재 역사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마르탱 게르의 귀향>과 같은 영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상상력을 실험해 볼 수 있다.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언어적 서술 이상의 역사 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현재와의 관련 속에서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했다.
- ⑤ 역사 연구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하층민들의 목소리가 '지식인'이나 '상위 계층'의 기록만큼 중요할 수 있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성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힘은 가르기 능력과 추론 및 연역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이성을 ‘주관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성은 본질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계산해내는 일을 한다. 주관적 이성은 목적 그 자체가 이성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목적과 관련되지만 그와는 구분되는 목적 중립적인 것이다. 주관적 이성은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문제 삼는 이성이며, 그 유일한 목적은 주체의 이익 관심을 실현할 유용한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가 단순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주관적 이성은 지난 세기 서양의 사유에서 나타난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다.

(나) 그러나 오랫동안 이성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반대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 관점은 개인적 의식 안에서뿐만 아니라, 객관적 세계 속에도 있는 하나의 힘으로서 이성의 현존을 주장했다. 여기서 객관적 세계란 인간 사이의 관계와 사회 계급 사이의 관계들, 사회 제도와 기관들, 그리고 자연과 그것의 발현을 가리킨다. ‘객관적 이성’이란 이와 같은 객관적 세계에 내재하는 합목적적 이성과 그것을 파악하는 주체의 능력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 독일 관념론 같은 거대한 철학적 체계들이 바로 객관적 이성 이론의 토대 위에서 건립된 것들이었다.

(다) 이 이론은 인간과 인간의 목적들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합리적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성 개념은 주관적 이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기준을 제공했던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표현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종류의 사유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의 객관적 질서를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과 자기보존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인간적 현존재와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객관적 이성 이론의 초점은 행위와 목표를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 다시 말해 최고선의 이념과 인간을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는 개념들에 맞추어져 있었다.

(라) 역사적으로 이성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은 처음부터 있어왔으며, 객관적 이성에 대한 주관적 이성의 우세는 오랜 진행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주관적 이성은 중세의 미신을 해체한 비판의 동력이었다. 신화를 잘못된 객관성으로, 다시 말해 주체의 산물로 고발하는 가운데 주관적 사고 능력은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객관성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성의 위기는 일정한 단계에 이른 사고가 절대적 객관성을 허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된다.

(마) 결국 어떤 특정한 실재도 더 이상 그 자체로는 이성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절대적 이성으로서의 객관적 이성 개념 자체가 가상으로 간주되고, 모든 합리적 개념의 객관적 내용마저도 주관적 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이성의 주관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이성의 주관화 경향이 확고해지면 사고(思考)는 이제 어떤 목표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2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점]

- ① 근대 이후로 객관적 이성은 주관적 이성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 왔다.
- ② 주관적 이성은 신화, 미신과 같은 중세적 사고를 잘못된 객관성이라고 비판했다.
- ③ 객관적 이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체계의 수립과 관련된 것이다.
- ④ 주관적 이성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찾아내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 ⑤ 이성의 위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이라는 개념이 허상으로 간주된 데서 비롯되었다.

30. 윗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가) — $\left[\begin{array}{l} \text{(나)} \\ \text{(다)} \\ \text{(라)} \end{array} \right] \text{ — (마)}$
- ② (가) — $\left[\begin{array}{l} \text{(나)} \\ \text{(다)} \end{array} \right] \text{ — (라) — (마)}$
- ③ (가) — (나) — $\left[\begin{array}{l} \text{(다)} \\ \text{(라)} \end{array} \right] \text{ — (마)}$
- ④ (가) $\left[\begin{array}{l} \text{ } \\ \text{ } \end{array} \right] \text{ — (다) — } \left[\begin{array}{l} \text{(라)} \\ \text{(마)} \end{array} \right]$
- ⑤ (가) — $\left[\begin{array}{l} \text{ } \\ \text{(나) — (다)} \end{array} \right] \text{ — (라) — (마)}$

31. ㉠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2.5점]

- ① 이성이 주관화될수록 공동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될 것이다.
- ② 이성이 주관화될수록 주체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 ③ 이성이 주관화될수록 자기보존을 넘어서는 상위의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④ 이성이 주관화될수록 객관적 세계에 내재한 합목적적 이성을 파악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 ⑤ 이성이 주관화될수록 진(眞), 선(善), 미(美)와 같은 보편적 개념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줍지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영락없이 바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었다. 아니라고, 별로 추운 줄 모르겠다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런데 나는 엉겁결에 그만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
 “너 못할 일만 시키는갑다.”
 아버지는 대변에 풀이 죽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얼어죽이지 않을라고 한다는 풍신이 이 모양이구나.”
 갑자기 고래가 막혀 아무리 불을 쳐때도 까까중이 이마 씻은 물만큼도 방바닥이 미적지근하지 못했다. 엄동의 한복판에서 줄지에 당한 일이라 방구들을 뜯어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궁이를 손보고 화덕 위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가 긴 고랫당그래로 그을음덩어리도 대충 긁어내보고 굴뚝도 쭉쳐보는 등등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헛수고일 뿐이었다. 한번 막혀버린 고래는 어거지로 우겨넣으려는 불길을 한사코 도로 아궁이 밖으로 내뿜기가 예사였다. 덕분에 식구들은 너나없이 고뿔이 들고 밤마다 고드름뚱을 싸느라고 눈을 붙이지 못했다. 솔에다 풀일 게 없는 것도 문제려니와 구들장을 데울 수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럴 무렵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뽕족한 수를 일러주었다. 화력이 유달리 센 청솔가지를 한바탕 기세 좋게 태우다 보면 더러는 저절로 뚫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일차로 어머니의 귀에 솔깃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양민증(良民證) 문제로 직장도 잃은 채 은둔 칩거하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아버지를 형편없이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게으름뱅이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침내 분발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그 청솔가지를 몰래 쳐 오기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의 장남인 내가 분연히 나선 길이었다.
 원래의 목적지인 소라단까지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그야말로 무사히 도착했다. 거리도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은 물론 대낮에 길거리에 나서는 것마저도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은 제법 위협이 따르는 모험이었다. 더구나 거기 소라단은 행방불명된 삼촌을 찾아 아버지 자신이 직접 시체 구덩이를 뒤지고 다닌 적이 있는 유명한 학살터였으므로 밤중에 남의 솔가지를 훔칠 요량으로 살금살금 숨어들어가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인지는 뻔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삼촌이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아버지가 크게 위안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소라단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청솔가지였고, 들판에 자리잡은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거기 이상 만만한 솔숲이 없었고, 그걸 꼭 구하려면 상당한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산감(山監)의 눈을 피해 감시소와는 정반대 쪽으로 으스스한 골짜기에 지계를 받쳐놓은 다음 아버지는 곧 일을 시작했다. 낮이 한 자루뿐이라서 아버지가 솔가지를 치는 동안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망을 보았다. 아무것도 안 보였으나 소리만은 잘 들렸다. 너무 잘 들려서 오히려 미칠 지경이었다. 낮질하는 소리가 바람소리를 도막도막 자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먼저 바람을 자르고 다음 산자락을 한쪽서부터 차근차근 썰고 마지막으로 내 가슴에 부딪쳐와서는 그나마 남아 있던 퉁알만한 담력을 가루로 으깨놓았다.
 ㉠낮을 맞은 나뭇가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방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작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었다. 때문에 들킬 걱정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곤히 잠든 소라단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서투른 도둑질 솜씨를 원망하면서 돌을 쪼는 정만큼이나 딱딱 울리는 낮질 소리에 온통

정신을 팔다가 나는 망보기를 자연 게을리 해버렸다.
 -윤홍길, 「땀감」

3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감각적 묘사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한다.
- ② 과거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 ③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④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독자와의 거리를 좁힌다.
- ⑤ 현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요약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3. ㉠에 담긴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자신이 망보기를 소홀히 하여 산감에게 들켜까봐 불안하다.
- ② 남의 눈을 피해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
- ③ 조심성 없는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도둑질이 발각될까 두렵다.
- ④ 날이 밝기 전에 산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초조하다.
- ⑤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삼촌'의 죽음이 연상되어 공포감을 느낀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 보 기 —

「땀감」의 배후에는 6·25라는 전쟁 상황이 깔려 있다. 이로써 선명히 부각되는 것은 '시국'을 잘못 만나 털썩 '양민(良民)'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생활의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만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무능력이라는 문제는 시대적 현실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맥락에서 조명된다.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역학'을 탐구하는 것은 작가 윤홍길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 문제에 대한 윤홍길의 관심은 집단에서 소외된 밑바닥 인생들의 생태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고발하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 사회의 부조리와 대결하는 개인의 윤리에 대한 소설적 탐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① 행방불명된 '삼촌'을 통해 개인에 대한 집단의 부당한 횡포를 희화화하여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소라단'은 양민의 지위를 잃은 '아버지'가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나무를 훔치는 '나'의 행동을 통해 산감(山監)으로 상징되는 폭압적 권력에 맞서 항거하는 민중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어.
- ④ 어머니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가 가족에서 소외된 채 걸도는 현대 세태를 풍자했다고 볼 수 있겠어.
- ⑤ 나무를 훔치러 '소라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하층민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어.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일찍이 자호(自號)를 월암(月巖)이라 하여 「월암이란 호(月巖序)」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 호를 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 호를 버리기로 하고 그 사연을 글로 쓴다.

몸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는 법이다. 천지라 이름을 지은 것은 천지가 있어서요, 산천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산천이 있어서요, 초목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초목이 있어서요, 금석(金石)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금석이 있어서다. 바탕[質]이 갖추어져 있으니 꾸밈[文]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별이 걸려 있고 바람이 이는 것은 하늘과 대지의 꾸밈이요, 수풀이 우거지고 잔물결이 넘실대는 것은 산천의 꾸밈이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초목의 꾸밈이고, 단단하고 흰 것은 금석의 꾸밈이다.

나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위에 자(字)*까지 지었으므로 그 자체가 꾸밈이 화려하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고 자를 붙인 데다 또 호(號)**까지 지어 붙인다면 꾸밈을 가한 데다 또 꾸밈을 가한 것이다. 꾸밈이 승(勝)하여 바탕을 없애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꾸밈 것이 다시 생긴다 한들 더 배플 곳이 있겠는가?

나의 호를 월암이라 지은 것은 내 집이 월암 밑에 있어서 그런 것뿐이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인생이란 물 위에 뜬 개구리밥이고, 바람 많은 나무에 걸린 벼들개지이며, 울타리에 걸리거나 주름에 날리다가 바닥에 뒹구는 꽃잎이다. 그를 가로막는 철문은 본래 없다. 월암이 내 소유의 창고인가? 알맹이 없이 이름만 소유함은, 바탕을 없애고 꾸밈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이런 호를 갖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 ㉢이름이 동네 밖을 나가지 않는다. 비록 호를 가졌다 한들 누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를 비난하겠는가? 허나 배움이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고,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음은 내게 달려 있다. 따라서 나는 나를 닮아 아무 부끄럼 없기를 바랄 뿐이다. 간사한 짓거리와 위선적 행위를 하여 내심 부끄러우면서도 남이 눈치채지 못함을 다행으로 여기는 세인들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누군가 “이미 사용한 호인데 어떡냐?”라며 권하기도 했지만, 나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꾸하였다.

-남종현, 「호를 버린 이유(去號序)」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붙이는 일종의 이름

**본 이름이나 자 외에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의문문의 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관련되는 내용을 열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36. ㉠~㉢의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5점]

<보 기>

이름 ㉠

- 1.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 2.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
- 3. 명의.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 4. 세상에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

	㉠	㉡	㉢
①	1	1	2
②	1	2	3
③	1	2	4
④	2	1	3
⑤	2	3	4

37. <보기>는 글쓴이가 윗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쓴 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글쓴이의 생각이 변화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나(남종현)의 집이 그 바위 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월암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자네는 일찍이 남이 자호(自號) 짓는 것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나?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이름이 생기면 자(字)를 만들어준다. 이름과 자만을 가지고도 세상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호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짓에 불과하다. 나는 흉내 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주장을 너무 서둘러 뒤집는 게 아닌가?”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감히 그럴 리가 있나? 요사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꼭 월암이라 부르고, 이웃집 사람들도 꼭 월암이라 부르네. 내가 남들의 질문에 답할 때면 꼭 월암이라 하고, 남들도 내가 오는 것을 보면 꼭 월암이라고 하지. 월암은 실상을 들어 말한 것이지 감히 호로 쓴 것이 아니요, 편의를 따른 것이지 감히 호로 쓴 것이 아닐세.”

-남종현, 「월암이란 호(月巖序)」

- ① 글쓴이가 본디 ‘월암’이란 호를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 ② 글쓴이는 ‘월암’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 것 같아.
- ③ 글쓴이는 이름과 자가 있는데 호까지 붙이는 것은 자신의 본질까지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④ 글쓴이는 자신이 우연적으로 얻은 ‘월암’이라는 호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 ⑤ 글쓴이가 처음에 ‘월암’이란 호를 사용했던 것은 자호를 짓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 같아.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샅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래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나) 흐르는 것이 물 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샅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샅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샅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샅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정희성, 「저문 강에 샅을 씻고」

3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감정이입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③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방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전복시키고 있다.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 직유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일꾼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노동요에 맞추어 보리타작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강물에 샅을 씻는 행위에 비유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적 화자의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달'이라는 시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비참한 현실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어두워'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과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두 시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2.5점]

— <보 기> —

어떤 이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인간의 노동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삶의 보람을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동은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자기 몫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과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근면 성실한 태도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의 산물로부터 지배당하게 되기도 한다. 즉, 인간의 노동은 '돈'이라는 교환 수단과 같은 의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간의 노동이 언제든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가 생산해낸 가치 역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노동은 인간을 억압하는 조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 ① (가)와 (나) 시의 화자는 모두 노동과 그 대가로 얻어지는 교환 수단인 '돈'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 ② (가) 시의 화자가 노동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은 일꾼들이 노동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일 거야.
- ③ (나) 시의 화자가 노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 자신이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 ④ (가) 시의 화자가 삶의 보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나) 시의 화자는 인간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 노동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가) 시의 화자가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로 노동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 시의 화자는 자신의 노동이 사회 속에서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리라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